

#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動市場
- II. 勞使關係

## I. 勞動市場

### ● 雇 傭

1991년 3/4분기중  
경제성장률 8.1%  
1991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9.7%

1991년 3/4분기중 GNP 성장률은 수출부진과 건설경기의 빠른 진정 등으로 2/4분기의 9.2%보다 1.1%포인트 하락한 8.1%를 시현하였다. 특히 섬유, 의복,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수출채산성 악화와 인력난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0.9%에 머물러 제조업 성장둔화를 주도하였다. 한편 1991년중 도매물가는 5.4%, 소비자물가는 9.7% 상승하여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속성장과 높은 물가상승은 1992년도 고용 및 임금교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3/4분기중  
취업자 2.7% 증가  
실업률 2.1%

1991년 3/4분기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고 취업자는 2.7% 증가하여 실업률은 2.1%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비농부문은 취업자증가율(4.5%)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4.1%)을 크게 앞질러 비농부문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37만 5천명으로서 3/4분기중 감속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부문 노동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그 구성상 여성화·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여 높은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반면 25~54세의 기간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1.6% 증가하여 베이비붐세대 이후의 인구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증가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어 주부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5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3/4분기 산업대분류  
제조업 0.1% 증가  
건설업 16.4% 증가  
서비스업 5.5% 증가

1991년 3/4분기중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2/4분기의 증가율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건설업은 전설경기진정대책의 효과로 증가율추세는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6.4%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호조로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여 2/4분기중 증가율 4.7%보다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은 노동시장의 인력흐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분기 직종대분류  
생산직 3.0%  
서비스직 5.4% 증가

1991년 3/4분기중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부문의 확대에 판매·서비스직은 높은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성장률 감소를 반영하여 생산직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에 머물러 1991년 1/4분기 이후 증가율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3/4분기 비농부문  
고용형태  
상시고 4.3% 증가  
일고 1.0% 증가

1991년 3/4분기중 비농부문 고용형태변화를 살펴보면 상시고는 전년동기대비 4.3%, 일고는 1.0%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 상승이 1990년 2/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일고는 2/4분기의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 賃 金

1991년 3/4분기중  
 임금총액 17.7% 상승  
 정액급여 18.2% 상승  
 초과급여 9.8% 상승  
 특별급여 19.8% 상승  
 임금총액 806천원

1991년 3/4분기중 월평균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7.7% 상승한 80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4분기의 상승률 18.0%보다 약간 하락한 것인데 임금교섭의 결과가 이미 2/4분기에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3/4분기 임금총액 상승률은 전년동기의 17.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임금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4분기에 2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특별급여는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여 19.8% 수준을 시현하여 예년의 추세로 회귀하였다. 이는 지난 2/4분기의 높은 특별급여 상승은 임금교섭이 2/4분기에 대부분 종결되면서 1/4분기 임금상승의 미지급분이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9.8%에 머물러 1989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임금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신규채용등으로 대체하여 나가고 생산직근로자 역시 초과근로를 기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9월말 현재 타결임금인상률은 10.4%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임금상승률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3/4분기에는 특히 정액급여 상승률 18.2%와의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사교섭시 수당의 신설이나 증액을 통해 통상임금 베이스인 타결임금인상률은 낮추면서도 실제임금인상을 높이는 임금교섭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분기 산업별임금  
 제조업 16.7% 상승  
 전기·가스·수도업  
 20.5%상승

1991년 3/4분기중 산업대분류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제조업은 2/4분기 18.2%에서 1.5%포인트 하락한 16.7%를 시현하여 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되었다. 건설업 역시 2/4분기 21.6%의 높은 임금인상률 수준에서 3.4%포인트 낮아져 3/4분기 이후 건설경기진정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업의 공공부문과 운수·창고·통신업부문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20.5%, 21.4%를 나타내 이 부문이 3/4분기중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분기 직종별임금  
생산직 16.3% 상승  
사무직 16.0% 상승

1991년 3/4분기중 직종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생산직이 16.3%, 사무직이 16.0% 상승하여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4.1%로서 전년동기대비 임금비율 73.8%에 비해 직종간 격차는 약간 개선되었다.

3/4분기 규모별임금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1991년 3/4분기중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7.1%인 반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9.4%로 나타나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勞動時間

3/4분기 월근로시간  
전산업 207.7시간  
정상근로 1.4% 감소  
초과근로 6.9% 감소

1991년 3/4분기중 월평균근로시간은 207.7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5시간 감소하여 1989년 이후 근로시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전산업이 47.8시간, 제조업은 48.8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대부분 초과근로시간부분의 6.9%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 기피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1년 10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 II. 勞使關係

### ● 賃金交涉

1991년 12월말 현재  
임금교섭진도율  
99.1%  
타결임금인상률 10.5%

1991년 12월말 현재 임금교섭대상업체 6,590개소중 6,528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완료되어 99.1%의 교섭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타결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은 10.5%로 나타났다.

● 勞使分糾

1991년중  
 분규건수 234건  
 해결건수 231건  
 분규지속일수 17.9일  
 노동손실일수 3,258천일

1991년의 노사분규는 12월말 현재 총234건이 발생하여 231건이 해결되었고 3건이 진행중이다. 이는 1일 평균 0.64건이 발생되고 0.63건이 해결된 수치이다. 또한 1991년의 노사분규건수는 전년대비 88건이 감소하여 27.3%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평균 분규지속일수 역시 1990년의 20.8일에서 17.9일로 감소하여 1991년은 노사관계의 안정추세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이는 또한 쟁의발생신고가 실제 쟁의행위로 연결되는 전이율이 1990년의 18.1%에서 1991년 13.6%로 감소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분규참가자수는 증가하여 전당 분규참가자수는 748명으로 1990년의 416명에서 크게 증가하여 분규가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손실일수등 분규비용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분규건수 및 분규지속기간의 감소 때문이다. 1991년중 분규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임금인상관련 분규비중이 56.4%로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하였고, 단체협약관련 분규비중 역시 23.9%로서 지난해보다 8.7%포인트 증가한 반면, 인사·경영관련 사항이나 구속자석방 등의 '기타' 원인은 13.7%로 지난해보다 8.0%포인트 감소하였다.

● 1992년 전망

1992년 임금교섭 전망  
 노총 요구율 15%  
 경총 제시율 4.7~6.7%

1992년 노총의 임금인상요구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액 74,180원, 인상률로는 15%이며 경총의 임금인상제시율은 대기업 4.7%, 중소기업 6.7%로서 그 격차는 8.3~10.3%로 나타나고 있다.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 산정근거는 1991년 12월 현재 노총이 조사한 3.97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경제적 차원의 고통분담을 감안하고 있다. 한편 경총의 제시율 산정근거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 4년간 경쟁력상실분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규모간 임금인상제시율을 차별화하고 있다.